

트럼프 “北 비핵화 서두르지 않겠다”

“다음주 2차 정상회담... 익사이팅할 것”

“특정한 시간표도 없어” 긍정적 효과 기대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를 서두르지 않겠다고 말했다.

특정한 시간표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워싱턴포스트(WP) 등의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에게 “내주는 매우

익사이팅할 것이다. 2차 정상회담이 열린다”며 “(북한 비핵화를) 궁극적으로 보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김 위원장은 핵무기 제거와 관련해 마음 속에 매우 긍정적인 것을 갖고 있다고 믿는다”면서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곧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나는 긴급한 시간표를 가지고 있지 않다(I have no pressing time schedule)”면서 “북한에서 핵실험이 없는 한 서두르지 않는다. 만일 핵실험이 있다면 그것은 또 다른 협상이다(As long as there's no testing, I'm in no rush. If there's testing, that's another deal)”고 강조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은 반대편에서 (북한 비핵화가) 매우 빠르게 이뤄지는 것을 보고 싶어 하는 것 같다”며 “다시 한번 ‘서두르게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말기를 본다면, 그건 재앙이었다. 대체 어찌됐던 것인가. 지금은 그렇게 없다. 아주 다른 느낌이다. (오바마 정부 때) 항상 위협이 있다고 사람들이 느꼈지만, (지금) 아주 다르게 느끼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북한이 엄청난 경제 파위를 가지고 있다고 정말로 믿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남한 사이의 있는 북한의 위치는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Their location between Russia, China and South Korea is unbelievable)”라고 말했다.

뉴스스



영어객기, '제트기류' 덕에 초음속 비행

48분 일찍 도착... 가장 “내 평생 최고의 순풍”

대기중 상층부의 강력한 제트기류에 힘입어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영국 런던으로 비행하는 버진에틀랜드 소속 보잉 787-9 쌍발 제트여객기가 19일(현지시간) 한때 지상 기준 음속을 넘는 시속 801마일(1천289km) 속도로 비행했다고 미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이비행기 조종사 피터 제임스 기장은 이날 미 펜실베이니아 3만5천피트(1만668m) 상공을 통과할 때 801마일을 기록했다면서 “여객기 조종사를 하면서 이런 순풍은 처음 겪었다”고 트윗했다.

그 덕에 여객기는 당초 예정시간보다

48분이나 빨리 런던에 도착했다.

보잉 787-9 기종의 종전 최고 비행속도 기록은 776마일(1천248km)이며 평균 운항속도는 561마일(902km), 최대 운항속도는 587마일(944km)로 이를 넘는 속도는 순풍 때문에 가능하다.

801마일은 지상에서 음속(767마일, 1천234km)을 넘는 속도다. 그러나 음속을 쫓는 대개 이동속도를 반영하기 때문에 대기 상층부에서 801마일은 음속을 넘지 않는다. 여객기는 초음속 비행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되지 않는다.

뉴스스

美 우주군 창설 행정명령 서명 2020년까지 제6군 편성 박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주군 창설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CNBC,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미국 언론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제6군을 창설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의회의 우려에 우주군의 지위를 미 공군 내 부기로 결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우주군 창설을 지시하면서 2020년까지 우주군을 미군의 제 6군으로 편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19일 백악관에서 진행된 서명식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중대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미국은 완전한 장비를 장착해야 한다”며 “우리의 적들은 미국의 우주 안보를 약화시키기 위해 훈련을 하고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우주 방어에 투자하는 것은 군사력을 향상시키고 국가 이익을 지키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우주군 창설을 위해서는 미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의회에 2020년 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포함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WSJ는 보도했다.

우주군 창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시한 ‘우주 정책 지시 4호’에 의해 이뤄졌다. 미 우주군은 1947년 미 공군이 육군 내 공군군단에서 독립하면서 창설된 이래 최초의 예하 군단이 될 전망이다.

현재 미 공군은 우주 사령부를 통해 우주 분야를 관리하고 있다. 미군은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해안경비대 5군 체제로 구성돼 있다.

우주군은 앞으로 미 해병대와 유사한 구조를 갖게 된다고 CNBC는 전했다. 해병대는 해군 산하에 있지만 합동참모본부에 별도의 기구를 두고 있다.

뉴스스



CNBC,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미국 언론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주군 창설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비핵화 대가...주한미군 일부 감축 고려할 수도”

美 전문가, 한국 방위비 세계 10번째로 높아 재평가해야

북한이 비핵화조치에 동의하는 경우 상응 조치로 주한미군의 일부 감축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미국 전문가가 의회전문매체 더힐에 기고한 글에서 주장했다.

국제문제 사카고 위원회 칼 프리도프 연구원은 19일(현지시간) 더힐에 기고한 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의미 없는 양보를 받고 주한미군을 감축하려는 제안을 할 것이라는 우려가 미국과 한국 전문가들 사이에 있다”면서 “주한미군 감축은 오래도록 터부시돼 왔지만 북한이 신뢰할 만한 비핵화조치에 동의한다면 주한미군의 일부 감축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프리도프 연구원은 1954년 한국에 주둔한 미군이 22만3천명이었으며 13년에서

21년을 간격으로 네 차례에 걸쳐 감축이 이뤄져 현재 2만8천500명이며 마지막 감축이 있었던 지 14년이 지난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군 감축이 진행되면서 한국군이 임무를 떠맡아 한국의 방위비가 세계에서 10번째로 많은 420억달러(약47조 8천200억원)에 달한다면서, 미국은 주한미군의 역할을 재평가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주한미군은 북한의 남침에 대한 방위목적에 그치지 않고 미군의 자동개입을 보장하는 ‘인제 철선’ 역할을 하는 것이라면 더 적은 수의 미군으로 북한을 억지하고 지역 위기에 대응할 수 있다면서 주한미군을 감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프리도프는 과거에 주한미군 감축은 한

국과 긴밀한 협의 아래 진행됐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중대한 양보 없이도 감축 또는 전면 철수할 수 있음을 밝혔다고 지적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전략적 실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 동맹을 풀이킬 수 없도록 손상시키고 북한을 자극하며 역대 미군의 지위를 훼손하게 된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보호해주는 데 미국이 엄청난 돈을 쓰고 있으며, 한국이 방위비를 제대로 부담하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는 식으로 여러차례 말한 바 있다.

프리도프는 주한미군 주둔비협상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주둔비 전부를 대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뉴스스

베트남, 북미회담 관광특수 기대감 ‘들쭉’

베트남이 2차 북미정상회담에 따른 관광특수 기대감에 들쭉이고 있다. 1차 회담의 무대가 된 싱가포르처럼 2차 북미회담 개최국인 자국도 국가 마케팅 효과를 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다.

20일 현지 일간 베트남뉴스(VNN)에 따르면, 싱가포르를 지난해 자국에서 열린 1차 북미회담으로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면서 관광특수를 특별히 누렸다.

싱가포르 관광진흥청에 따르면, 1차 회담이 열린 6월 한달 동안 싱가포르를 찾은 관광객은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11.2% 상승한 150만여 명에 달했다.

특히 회담 당일인 6월12일을 앞둔 이틀 동안에 싱가포르를 찾은 외국인도 2천500여명에 달하는 등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7% 가량 증가했다.

VNN은 오는 27~28일 이틀에 걸쳐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서 열리는 북미 2차 회담에도 수천 명의 취재진이 몰릴 것이라며, 베트남도 싱가포르와 똑 같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지 관광업체인 ANZ투어는 “이번 2차 북미회담은 전 세계에 베트남의 이미지를 고양시킬 수 있는 기회”라며 “회담 기간 중 하노이를 찾는 방문객이 크게 늘 것으로 보



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도 베트남을 찾는 관광객이 크게 늘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업체는 또 이번 회담 기간 중 미국인 관광객 예약이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 관광객 현황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고 했다.

다만 “북미회담 이후 북한에서도 더 많은 관광객과 기업인들이 베트남을 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베트남은 회담이 열리는 이틀 동안 하노이에 수천 명의 취재진이 몰리는 만큼, 이를 이용해 국가 홍보에 나서겠다는 전략도 세웠다.

뉴스스

부동산 스페셜

광고접수 062)510-4500
- A형: 83×100
- B형: 83×50 - C형: 126×50

윤슬의 아침_나주

명품 전원주택단지 분양

총 33 필지 기반 조성중! 061.334.3040

(주)디디하우징 최고의 조망, 숲세권!! 동신대 한의학관 바로 옆

UO work **중개없이 성과가 되는 권** 보증금/관리비 **무** 24시간 운영!!

소호사무실 입주사 모집

- 특장점
 - 보증금, 관리비(전기세, 수도세) 없음
 - 최고급 인테리어, 사무집기 무료제공
 - 무인 우편, 택배 보관 가능 • OA기기, 회의실 이용 무료
 - 사업관련 제휴업체 연계(세무, 법률 등)
 - 카세어링 서비스 • 생체인식 보안시스템
 - 샤워장 • 주차장 • 산소발생기

UO work 금남점 Tel. 1800-5711
광주 동구 금남로 193-22 (금남로4가역 4번출구 2분거리)

생활정보 스페셜

광고접수 062)510-4500
- A형: 83×75 - B형: 40×75

캠핑카 주문제작·판매

푸드트럭제작 가능!

중고차 수입·화물 승용·합합 **최고가 매입!**

대한민국 최저가로 제작·판매 합니다!!
광주 서구 매월로 63번길 11

(주)기가찬 H. 010-8647-3457 ☎ 062) 651-0075

보증보험 가입업체 관허 97호 ◆ 20층 장비 보유 ◆

포장이사를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저희 업체는 전 직원이 경력자로서 최상의 서비스와 저렴한 가격으로 고객님의 물건을 안전하게 운반해 드립니다.

한국어든 일반 가능 062)522-2424 전라권 지역 061)375-8824

※ 견적은 무료이며 이사장님이 직접 방문 ~ 절대 웃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보증보험 가입업체 - 분심파수시 재정부장부 소비자 피해 보상 규정에 의함 / 관허 124호

LG 익스프레스

이사 마무리시 스팀청소 서비스

- 선반·가구·싱크대·냉장고 청소
- 블라인드, 버티컬 탈부착 무료
- 2층~22층 사다리 보유
- 전국 체인점망 구축
- 에어컨 이설, 피아노 운반 전문

전국 어디서나 문의 080-925-1234, ☎ 572-8900